

새 힘을 얻으십시오

강영우 / 한호협 회장(건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시인)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 윤동주, <서시> 부분 -

새해에 한호협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환우들께 가득 내리시길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호스피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새 힘을 얻으십시오.
내적, 외적인 환경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얻으십시오.

저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 임원회에서도 상의되었던 몇 가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호스피스 공동체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지부의 명칭을 지회로 바꾸고 각 지역의 임원들을 선임하여 지회별로 정기 모임 혹은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회의 범위가 넓어 자주 모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지회 내에 각 지역장을 선임하여 지역별 모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춘·추계 한호협 세미나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회원님들이 오셔서 한 가지라도 배우고 가져갈 수 있는 학술 세미나가 되도록, 또 다양한 지역별 요구가 통합·보완되도록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내년에는 국제 호스피스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대정부, 대정치권, 대사회 관계를 친밀하고 역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력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호협을 한국 호스피스의 중추적 단체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한호협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 위해 모든 죽어가는 것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서로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새 힘으로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살롬...